

격투 게임 최강자 가린다… ‘스트리트 파이터’ 김관우 주목

광주 e스포츠 시리즈 아시아
오늘부터 이틀간 대회 진행
'철권7' 韓 vs 日 국가대항전
김관우·초청 선수들 팬미팅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관우 선수의 열기가 이번에는 광주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우 선수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에서 격투게임을 대표하는 유명 선수들이 광주에 모여 한판 붐을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는 올해 마지막 e스포츠대회인 '광주 e스포츠 시리즈 아시아(GES ASIA)'를 12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인기 격투게임을 주제로 하는 파이터즈 워크 형태로 치러진다.

우선, 첫날인 1일은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으로 진행한다. 다음날은 '철권7'이다.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김관우 선수를 비롯해 동메달리스트인 대만의 린 리웨이, 일본의 카나모리 츠네히로, 홍콩의 예만호 등이 출전한다.

특히 김 선수는 40대 최고참 선수로



지난 9월 2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트리트파이터V' 종목으로 금메달을 딴 김관우 선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스

한국에 첫 e스포츠 금메달을 안기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철권7' 종목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4대 4 국가대항전으로 치른다.

대한민국은 임수훈(울산)·김재현(체리베리망고)·전상현(전평), 오대일(며일) 선수들이 출전해 다양한 캐릭터와 화려한 기술로 일본 선수(아베 아키히로·타케유타·야마구치 신야·우에다다이키가)들과 승부를 가른다.

대회에 앞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대회도 함께 열린다. 종별 상금은 1위 150만원, 2위 80만원, 3~4위 35만원이다.

또 현장에서 김관우 선수를 비롯한 초청 선수들의 팬미팅을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e스포츠대회에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금메달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인기 있는 대회를 유치해 e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우 선수는 지난 9월 28일 중국 항저우 e스포츠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스트리트파이터5 결승전에서 풀세트(4대3) 접전 끝에 대만의 양위린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e스포츠 종목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라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LoL(리그오브레전드)에만 집중 돼 있던 e스포츠의 열기는 김관우 선수의 우승으로 격투게임에 쏠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관우 선수는 1020세대가 대부분인 e스포츠 선수단에서 최고령이다. 그는 30년 넘게 격투게임만 온전히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그를 '고인물(게임계은어)'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김관우 선수도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오래살고 볼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e스포츠협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원,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준 데에 따른 값진 보상"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 3종' 통합 이벤트

3종 게임서 배지 찾는 미션 전개형

위메이드플레이의 인기 모바일 게임 3종의 통합 이벤트 '애니팡 탑험대: 배지를 찾아서(이하 애니팡 탑험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애니팡 탑험대'는 '애니팡2', '애니팡 사천성', '애니팡 타치' 등 3종의 모바일 게임 이용자 자신이 플레이하던 게임으로 경품 응모와 순위 점수를 매기는 배지를 찾는 미션 전개형 이벤트다. 3종 게임 중 단일 게임 또는 2개 이상의 게임으로 참여해 배지를 합산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각 게임 내 계시판을 통해 게임별, 통합 톱30 현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이색 재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통합 이벤트의 주인공인 '애니팡2', '애니팡 사천성', '애니팡 타치'는 국내 대표 장수 모바일 게임으로 성별, 연



위메이드플레이의 3종 게임으로 진행하는 통합 이벤트 '애니팡 탑험대'. /위메이드플레이

령, 선호 장르 등이 각기 다른 이용자들이 즐기는 대중적 모바일 게임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는 10년차 반열에 오른 '애니팡 사천성'의 여성 이용자, 9주년을 맞이하며 3매치 퍼즐의 정석이 된 '애니팡2'의 중장년층, '애니팡 매치'의 손맛을 즐기는 20대와 30대 등 캐주얼 게임 팬들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게임즈, 장애인식 개선 등 앞장

'장애인먼저실천상' 우수상 수상

카카오게임즈가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에서 우수실천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내달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시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사회통합 교육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주어진다. 카카오게임즈는 국내 최초로 3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전

개, 장애인의 실질적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2019년부터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게임문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게임 연계 기부 캠페인 및 임직원 참여 기부 프로그램으로 모은 성금을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등에 기부하고,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링키지' 랠달장애 직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 및 실질적 지원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CFS 2023 그랜드 파이널 개막

중국 청두서 12일 간 대회 진행
상금 18.4억 지난해비 10만弗↑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중국 청두에서 전세계 최고 권위의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대회인 'CFS 2023 그랜드 파이널'의 개막식과 개막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12일 간 진행된다.

CFS 2023 그랜드 파이널'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있다. 4년만에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의 인기가 가장 높은 중국 청두에서 유관중으로 역대 가장 긴 총 12일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상금은 지난해보다 10만달러 상승한 142만달러(약 18억4000만원)이다.

중국, EU-MENA,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총 4개 권역에서 선발된 12팀은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그룹 스테이지와 4년 만에 국제 대회에 복귀하는 터키의 LCK 팀이 맞붙는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3위를 차지한 팀



스마일게이트, CFS 2023 그랜드 파이널 중국 청두서 본격 개막.

/스마일게이트

들 간의 와일드카드전은 4일 진행된다. 그룹스테이지 1, 2위를 기록한 6팀과 와일드카드전을 통해 선발된 2팀으로 구성된 총 8팀은 12월 5, 6일 양일 간 진행되는 넥아웃 스테이지 경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달 8일에 시작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4개의 티켓을 걸고 싸운다.

개막전은 A조의 전년 준우승팀 중국의 청두 올케이머스와 4년 만에 국제 대회에 복귀하는 터키의 LCK 팀이 맞붙는다.

다. 이 외 A 조에는 브라질의 전통 강호 임페리얼과, 역시 4년 만에 CFS에 등장하는 북미의 쿠가르나가 배정돼, 치열한 3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조에는 XROCK e스포츠(중국), 빈시트 게이밍(브라질), 랭킹이스포츠(베트남), 아누비스 게이밍(이집트)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 해 CFS 2022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아누비스 게이밍 외 최근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생팀들로 구성돼 결과가 예측이 어려운 조다.

C조는 지난해 챔피언 중국의 바이샤 게이밍과 3BL 이스포츠(이집트), 퍼시픽 막타(필리핀), 카라하우스.2L(베트남)이 편성된 1강 3강의 구조다. 절대강자 바이샤 게이밍의 상대로 2021년부터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카라하우스.2L, 성장 중인 퍼시픽 막타, 이집트를 대표하는 3BL 이스포츠의 분투가 관전포인트다.

/최빛나 기자

'올해를 빛낸 수상작' 서 성과

데브시스터즈의 개발 스튜디오 스튜디오 킹덤이 개발한 모바일 RPG '쿠키런: 킹덤'이 구글플레이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3'에서 2관왕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를 빛낸 수상작'은 구글플레이가 매년 말 혁신성과 대중성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유저의 사랑을 받은 앱과 게임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한해 동안 활약한 수상작을 돌아보는 이 자리에서 '쿠키런: 킹덤'이 '올해를 빛낸 PC 게임 최우수상'과 '올해를 빛낸 장수 게임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출시 3주년을 앞둔 '쿠키런: 킹덤'이 한해 동안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은 모바일과 PC를 넘나들며 게임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 유저 호응 때문이라 분석된다. 최근 유저가 선호하는 플랫폼



쿠키런: 킹덤,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3' 2관왕 등극. /데브시스터즈

유튜브, 37종 게임 가능한 플레이어블 출시

프리미엄 구독자 대상

유튜브가 인앱 게임 서비스인 '플레이어블'을 출시했다. 플레이어블에서는 '앵그리버드'를 포함한 37개의 게임

을 이용할 수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일부 국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를 대상으로 앱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게임 서비스 플레이어블을 출시했다고 공지

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레이어블은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유튜브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톱에서 즐길 수 있다. 현재 '앵그리버드'를 비롯한 37개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은 더 추가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다양화 추세에 맞게 모바일뿐 아니라 구글플레이 게임즈 등을 통해 PC에서 도 최적의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빛낸 PC 게임'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쿠키런: 킹덤'이 최초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최빛나 기자